

'배달의 명수' 종합쇼핑몰로 거듭난다

군산시 전국 첫 출시 공공배달앱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1주년 맞아 풍성한 경품행사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출시한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비대면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한다. 군산시는 가맹점과 소비자가 서로가 상생하는 앱으로 자리매김한 '배달의 명수'를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쇼핑몰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배달앱에서 주문하지 못했던 꽃집과 건강

원, 방앗간, 정육점, 떡집 등 새로운 품목의 근거리배달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로컬푸드와 골목숙퍼 등을 활용한 주문배달을 접목시켜 지역 내 활용가치를 높이는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빠르면 9~10월 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 출시된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3월 현재 1222곳으로 가입자가 12만6202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출액은 89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은 음식점에서 꽃집, 건강원, 정육점, 떡집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다. 군산시는 출시 첫 돌을 맞아 풍성한 경품행사를 연다.

오는 12~14일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 주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 무선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에어팟을 나눠준다.

매일 30명을 선정해 농산물 선물 세트와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왔다"며 "비대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명수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 순정축협, 내장산로에 내장산지점 개점

정읍 순정축협은 최근 정읍시 내장산로 한우명품관 부지에 내장산지점의 문을 열고 금융업무

고장인 순정축협 조합장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금융접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장산지점은 개점을 기념해 정기적금 최대 금리 2.0%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또 대출, 예금, 카드, 보험 신규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장점마을 피해·공동체 회복 지원에 최선 다해 달라"

윤후덕·우원식 의원 장점마을 방문
정현을 시장, KT&G 책임 추궁 요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세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윤후덕(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위원장 등이 8일 익산시 장점마을을 방문한 뒤,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KT&G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8일 함라면 장점마을을 방문 암 발병 근원지로 알려진 금강농산 부지를 찾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KT&G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한 피해자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 중 하나인 KT&G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피력했다. 특히 학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단 한 차례의 방문도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치권에 도움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또 장점마을 주민 피해 치유 및 지역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신규 사업으로 250억원이 소요되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용역비

는 올해 반영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후덕 기획재정부위원장은 정 시장의 요청에 대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식 균특위원장은 "KT&G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나갈 것"이라며 "국회 역시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화훼농가 돕고 시민 위로...익산시 꽃선물 이벤트

익산시는 생활 속의 다양한 사연을 보내오는 시민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을 200자 이내로 작성해 익산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코너에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 지친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다.

'지친 나를 위로하는 작은 행복'을 주제로 한 사

사연은 오는 26일까지 받으며, 100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보내준다. 선정된 사연은 시 홍보채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국내 최대 '군산 신시도 자연휴양림' 19일 개장

산림청 230억원 들여 조성

200명 수용 산림휴양관 등 갖춰

군산시는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오는 19일 개장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 230억원을 들여 군산 신시도에 건립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56개의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 섬전체를 전기 셔틀카로 순환할 수 있는 4.2km 길이의 해안 탐방로, 휴양림 등을 갖췄다. 방문자 안내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전망대도 설치됐다.

신시도자연휴양림은 국립 자연휴양림 가운데 최대 규모며,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오는 19일 개장하는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전북교육청, 초·중생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운영 자원봉사 활용 학습 더딘 학생 지원

전북교육청이 학습이 더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한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는 학습속도가 느린 초·중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예비교원인 전주교대·전북대·전주대·군산대·원광대·우석대 학생들과 정읍·남원 학습친구엄마샘이 코디징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봉사활동이다.

전북교육청은 10일 우석대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전북지역 대학교 2~3학년 예비교사와 정

읍·남원지역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사전 교육과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정책을 안내하고, 운영 사례 소개 및 공유를 통해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는 ▲초등 저학년 첫걸음 지원 ▲읽기·쓰기·기초수학을 지도하는 '기초학습(3R)' 지원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학습 향

상 지원' ▲학습고민·상담 지원 ▲학습코칭 지원 등 학습더딘아동에 대한 1:1 집중지원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참여학교 수는 초등 56개교, 중학 13개교 등 총 69개교이며, 도움을 받게 될 학생은 초등 367명, 중학 111명 등 모두 478명이다.

참여 보조교사 수는 초등학교에 224명, 중학교에 65명 등 전북지역 대학생 289명과 학부모 지원단 12명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